

東仁숙의 죽음 意味

尹 弘 老*

- | | |
|---------------------|------------------|
| I. 序 言 | IV. 에로스와 죽음의 同一視 |
| II. 禁忌의 破壞—抗拒精神 | V. 靈魂의 復活과 죽음 |
| III. 狂氣의 죽음—天上美의 創造 | VI. 結 語 |

I. 序 言

끝없는 사랑을謳歌한 春園의 作品이 「情事의 文學」⁽¹⁾이라면 東仁 作品은 죽음의 裝置를 어디서나 設定한 「죽음의 文學」이라고 할 수 있겠다. 春園이 告白한대로 春園 作品 素材가 밍글은 日常的인 것이라면 東仁 作品은 癡藥처럼 醉하게 한다. 東仁은 日常的인 것에는 견디지 못하고 刺戟的인 緊張感을 어디서나 換起시키는 極限的인 舞臺 設定의 名手다. 그는 唯我獨尊의 人生觀을 作品에 그대로 反映시켜 春園流의 덤덤한 亞流는 아예 포기했다. 東仁은 죽음의 裝置와 아울러 肉體를 赤裸裸하게 등장시키고 있다. 죽음과 性은 文明社會에서는 가장 꺼리는 禁忌(Taboo)된 世界다. 그럼에도 東仁은 禁忌된 赤線地帶를 不斷히 넘나들며 讀者를 衝動시키고 있다. 東仁이 照明한 世界는 새로운 新天地였다. 그것은 분명코 韓國人의 意識 領域을 新奇스럽게 擴張하는 새로운 挑戰이었다. 東仁의 姿勢는 想像할 수 있는 비전 혹은 모델의 形成에 언제나 골몰하고 끊임없이 새것을 찾는에 彷徨한다. 東仁의 彷徨은 죽음에서 오랫동안 머문다. 그가 죽음을 作品에서 裝置로 使用한 데는 그의 생애가 너무 崎嶇한 원인도 있는데다가 作品 活動期에 文壇風潮 影響도 있었다. 그러나 東仁 作品上에서 展開되는 죽음의 意味는 東仁流의 複合的 意味로 含蓄된다.

II. 禁忌의 破壞—抗拒精神

東仁이 文學 活動을 시작할 무렵은 3·1運動의 意志가 팽창되었다가 挫折된 時代와 겹친다.

* 檀國大學校 文理科大學 助教授, 國文學

(1) 東仁은 春園文學을 「情事의 文學」이라고 罵倒했고, 月灘은 春園작품을 「戀愛小說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傳統的인 民族意識은 斷絶되고, 植民地 治下에서 새로운 權威의 힘에 支配받아야만 했던 歷史 社會 環境은 唯物獨尊의인 正面 衝突을 拒否한다.

「정치 운동은 그 방면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문학으로——」⁽²⁾

東仁의 스토리는 純文藝, 人生問題 提示로 歸着된다. 그러나 歷史 意志에서의 東仁의 돌음길은 그대로 生의 問題에서 분풀이가 되고 만다. 그는 氣高萬丈하여 第一人者로서의 自負心을 宣戰한다.

大海도 없고 大陸도 아닌 우리 반도의 반도적인 특유한 지리적 인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듯 가늘고 약하고 가벼운지? 線이 굵고 스케일이 크고 무거운 작품 작가는 왜 생겨나지 않는지? 精치 못하여도 좋으니 굵고 큰 작품이 생겨 주기를 余는 바랐다. 그러나 한 때 한때의 小才 奇才는 있었지만 마음놓고 뒤말을 巨才는 상기 보이지를 않는다.⁽³⁾

英雄主義 崇拜者 東仁의 眼目에는 스케일이 작고 技巧만 重視하는 當代의 作家들이 못마땅하였다. 東仁에게는 더 新奇스럽고 戰慄的인 緊張을 주는 衝動의 追求때문에 冒險이 따른다. 그는 새 衝擊을 供給받기 위해 언제나 既存 秩序를 파괴시킨다. 安逸하고 固定된 삶의 生物的 生活樣式은 東仁에게는 無價値하고 一般의 意味로 죽음을 뜻한다. 그에게 가장 큰 刺戟의 供給源은 傳統社會에서 가장 타부시하는 섹스와 죽음이다. 죽음은 우선 作品 主人公과 環境과의 긴장 관계에서 야기되는 葛藤에서 이루어 진다. 新傾向派 自然主義系列에 속하는 東仁 作品의 죽음은 環境 挫折(environmental frustration)이 그 主要因이다. Neo Freudian 학파들도 環境은 人間性을 造成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人間은 本來 善良하지만 環境의 挫折이 人間을 공격적인 성격으로 키운다.⁽⁴⁾

環境의 挫折의 原因은 主로 貧困이나 無知다. <苔刑>(1923)은 감방이라는 特殊 空間을 實驗管으로 하여 人間性을 實驗한 것이다. 主人公인 「나」는 감방이라는 粗惡한 벽속에 갇혀서 醜惡한 利己心을 露出시키고 있다. 만일 백도 이상의 찌는듯한 더위 속 좁은 공간 속에서 짐작 포개듯 40여명의 죄수들 틈에 내가 끼여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영원영감」을 死地로 가도록 衝動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영원영감」이 자리를 비우면 그만큼 내 肉體 環境條件은 좋아지기 때문에 「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려고 「영원영감」을 죽음의 길로 '가게 한 것이다. 苔刑은 春園 作 <無明>(1939)과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無明>의 主人公 「진」은 極惡한 環境인 감방 속에서도 여전히 汚染되지 않고 涅槃의 境地에 이른 사람같다. 「진」의 눈에 비친 「윤」「민」의 죽음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貪慾때문이다. 貪慾이 죽음을 잉태하였는데, 그 貪慾은 「윤」

(2) 東仁全集 8. p. 381. (以下 全集으로 略함)

(3) 全集 10. 余의 文學道 p. 316

(4) Norman O. Brown: Life against death, p. 98